

금호산업(주) KUMHO Industrial Co., Ltd.

본평가
평가일: 2018.05.25

평가개요	신용등급 A3-	평가대상 기업어음	유효기간 2019.06.30
------	--------------------	--------------	--------------------

Analyst	정정훈 책임연구원	02)6966-2474	jjh07255@scri.co.kr
	박춘성 실장	02)6966-2467	cspark1113@scri.co.kr

Latest Rating	평가일 -	구분 -	등급 -
---------------	----------	---------	---------

재무요약	(단위: 억원)				
(연결기준)	2015.12	2016.12	2017.12	2017.03	2018.03
매출액	15,310	13,537	12,979	2,543	2,813
영업이익	208	418	311	33	55
EBITDA	220	430	322	36	58
총자산	13,100	12,746	12,849	12,718	12,769
순차입금	2,166	1,975	1,628	1,679	1,409
EBITDA/매출액(%)	1.4	3.2	2.5	1.4	2.1
NCF/경상투자(배)	33.1	N/A	5.1	6.1	22.7
부채비율(%)	351.5	309.5	227.2	269.9	234.2
차입금커버리지(배)	9.9	4.6	5.1	11.7	6.1
유동성커버리지(%)	73.8	124.3	99.4	120.6	109.8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주1: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및금융상품

주2: 차입금커버리지=순차입금/EBITDA

주3: 유동성커버리지=(현금및금융상품+EBITDA)/단기성차입금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금호산업(주)의 기업어음 본평가 신용등급을 A3-로 평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공중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사업안정성
-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vs. 단순 도급중심의 리스크관리
- 관급 및 민간도급공사 위주의 사업구성으로 열위한 수익성
- 공사대금 회수에 기반한 안정적인 자체 현금흐름
- 계열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부담

■ 신용등급 논리

금호산업(이하 '동사')는 금호계열의 주력 건설사로서 2017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의 종합건설업체이다. 과거 (주)대우건설 인수과정에서의 재무부담 등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한 뒤, 2015년 종료되었다.

토목, 플랜트, 건축 등 다양한 공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토목, 건축, 플랜트 사업에서의 오랜 업력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수주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특히 공항공사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2017년 매출액 기준 토목(32.3%), 건축(54.3%), 플랜트(5.4%), 기타(8%)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건축 부문의 매출과 수주잔고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자체 개발사업 보다는 단순 도급위주의 공사수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 주택경기애 따른 실적변동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

저마진의 관급공사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열위한 수준이다.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주택사업에 비하여 사업위험이 낮은 관급도급공사 위주로 수주를 확대하면서 주택경기애 따른 실적변동성은 완화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낮은 도급공사의 특성상 비교적 저조한 영업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수주잔고가 5.4조원으로 향후 매출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급공사 중심의 매출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다.

공사대금 회수에 기반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있다.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한 관급공사와 단순 도급공사의 사업구조로 인하여 운전자금의 소요가 크지 않은 편이며, 양호한 영업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제고되고 있다.

그룹 전반의 재무부담이 과중하여 주력 계열사로서의 지원부담이 존재한다. 그룹 재건과정에서의 차입부담으로 그룹 전반적인 재무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며, 동사가 유사시 지원주체가 될 수 있는 점은 신용도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 모니터링 요소

서울신용평가(주)는 동사의 사업현황과 재무안정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향후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외형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변동성 축소된 가운데
- 전반적인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계열에 대한 지원부담이 경감될 경우

반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

- 진행 및 예정사업장의 사업성과 부진으로 실적변동성이 확대되어
- 자체 차입규모가 확대되거나 계열 지원부담이 확대 또는 가시화될 경우

■ 주요 평가요소별 검토

금호계열의 핵심 건설업체

동사는 1960년 타이어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1999년 금호건설(주) 합병으로 건설업과 운송업으로 사업부문을 확장하였으며, 2003년 타이어부문 매각과 2006년, 2011년 레저사업, 터미널사업부문 및 고속사업 부문 분할로 2017년 말 현재 건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금호계열 회사이다.

- 2017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2016년 15위)의 종합건설업체로 토목 및 건축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 2009년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과정에서 채무부담 등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하였으며, 2015년 종료 하였음.
- 2017년 12월말 기준 최대주주는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고속(주)(45.54%)이며 나머지는 특수관계자(3.5%) 및 기타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다양한 공종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안정성 구축

동사는 그룹 주력 건설업체로서 오랜 업력 및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토목, 건축, 플랜트 등 다양한 공종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오랜 사업경험 및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공항, 제주공항 등 공항 공사분야에서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음.
-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토목 32.3%, 건축 54.3%, 플랜트 5.4%, 기타 8%로 구성되어 있음.

[공종별 매출구성]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금액	건축	6,962	7,631	7,039	7,044
	토목	5,785	5,577	4,835	4,197
	플랜트	1,609	1,156	686	706
	기타	879	946	977	1,032
	합계	15,235	15,310	13,537	12,979
비중	건축	45.7%	49.8%	52.0%	54.3%
	토목	38.0%	36.4%	35.7%	32.3%
	플랜트	10.6%	7.6%	5.1%	5.4%
	기타	5.8%	6.2%	7.2%	8.0%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동사제시

도급공사 중심으로 안정적인 외형 확보

공공 토목 및 플랜트 공사에서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도급 중심으로 건축사업 수주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연 1조원을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 2009년 워크아웃을 계기로 사업리스크가 있는 주택분양사업 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관급도급공사 위주의 사업구조를 변경함.

- 2017년 매출은 연결기준 1.3조원으로 이 중 도급공사의 매출이 1.1조원으로 8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매출 중 관급 도급공사 매출이 7,591억원으로 민간공사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구성하고 있어 수주구조가 양호함.
- 2014년 이후 자체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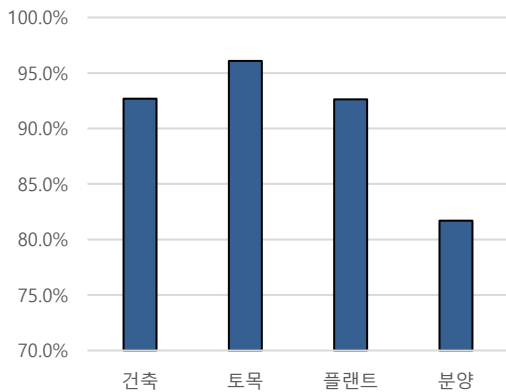
관급 및 민간 도급공사 중심의 공사매출로 지표상 수익구조는 열위

관급 토목 및 플랜트 공사의 경우 구조적 저 수익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사업 또한 단순 도급 위주의 공사매출로 이루어져 전반적인 수익성 지표가 부진한 수준이다. 도급공사 위주의 수주잔고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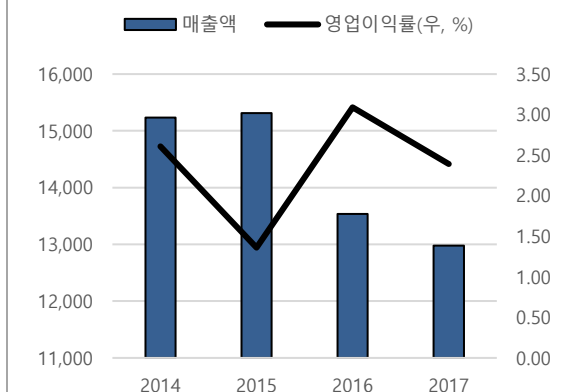
- 2013년 이후 진행중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다소 등락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략 2~4%내외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적극적인 신규수주를 통하여 수주잔고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관급 도급공사위주여서 수익성의 개선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 주택사업의 수주물량 확대와 매출계상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불리한 사업여건으로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음.

[부문별 원가율 및 수익성 추이]

(단위: 억원)



자료: 동사 제시(2017년 기준)



자료: 감사보고서

풍부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실적안정성은 유지되나 주택경기 둔화로 변동성은 확대

신규수주의 증가로 풍부한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어 2018년 이후 안정적인 영업실적 시현이 예상된다.

- 2017년 말 기준 동사의 수주잔고는 5.4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4.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외형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18. 3월말 기준 주요 신규수주 프로젝트는 신서천화력 탈황설비(435억원), 김포양곡 공동주택(416억원), 광주우산구역 재개발(2,211억원)등이 있으며, 수주잔고는 5.5조원으로 2017년 말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음.

[금호산업 수주잔고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잔고	33,044	42,060	43,480	54,104
매출(기타매출제외)	14,351	14,365	12,560	11,947
수주잔고/매출액(배)	2.3	2.9	3.5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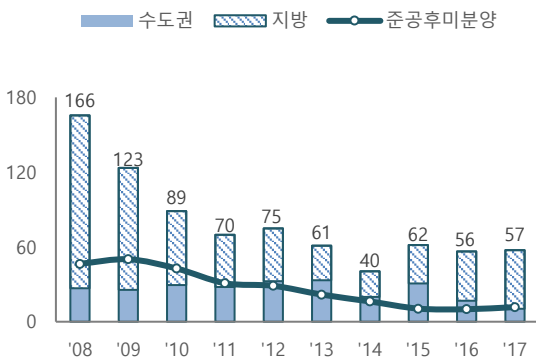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감사보고서 및 동사제시

다만, 2017년 3분기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폭 또한 확대되는 등 민간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둔화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동사의 경우 도급공사 위주의 사업구조로 주택전문업체에 비해 변동성은 크지 않으나, 향후 민간 건축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파트 미분양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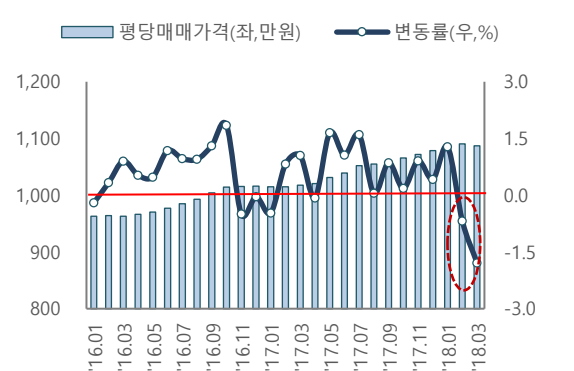
(단위: 천호)



자료: 국토교통부

[전국 실거래가 및 가격변동률]

(단위: 만원, %)



자료: 부동산114

원활한 공사대금 회수로 재무구조 개선 추세

관급 및 단순 도급 위주의 민간 건축 공사 매출비중이 높아 수익성은 부진하나, 원활한 공사대금 회수로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한 관급공사와 단순 도급 위주의 민간 건축사업 비중이 높아 운전자금 소요가 크지 않은 편임.
- 동사의 진행 및 예정사업규모와 재개발/재건축, 민간건축 등의 수주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당

분간 운전자금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의 비중이 50%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자금운용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됨.

[운전자금 구성 및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매출채권	4,448	3,870	4,072	3,414
미수금	692	707	937	924
선급금	323	383	476	557
대여금	152	105	722	769
재고자산	48	560	345	304
운전자금(합계)	5,663	5,625	6,552	5,968
운전자금/매출액(%)	37.2	36.7	48.4	46.0

자료: 감사보고서

주: 선급금은 선급공사비포함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이후,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한 관급공사 중심의 보수적인 경영으로 통해 영업에서의 양호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재무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

- 동사의 2017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227.2%로 워크아웃이 종료된 2015년 351.7%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보유현금을 감안한 순차입금은 2017년 말 기준 1,628억원으로 워크아웃 이후 재무조정 및 차입금 상환을 통해 차입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PF사업장에 대한 보증금액이 4,942억원이 존재하나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의거하여 3,942억원의 PF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보증손실을 추정하여 장부상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추후 사업장 매각 완료시 출자전환 될 예정으로 우발채무의 성격은 아님. 또한 한남더힐 사업장과 관련된 PF 1,000억원은 2018년 중 모두 해소되어 실질적인 채무부담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억원)

구분	2014.12	2015.12	2016.12	2017.12
EBITDA	411	220	430	322
총차입금	4,356	3,345	2,689	2,172
현금 및 금융상품	1,763	1,179	714	544
우발채무	675	649	694	1,480
선수금	454	1,070	628	746
조정순차입금	2,911	2,915	2,415	2,150
부채비율(%)	400.0	351.5	309.5	227.2
조정부채비율(%)	422.4	373.8	331.7	264.9
조정차입금커버리지(배)	7.1	13.3	5.6	6.7

자료: 감사보고서(연결기준)

주1: 우발채무는 채권단협약 등에 의거하여 PF지급보증은 제외

주2: 조정부채비율=(총부채+우발채무)/자기자본

주3: 조정차입금커버리지=조정순차입금/EBITDA, 조정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 및 금융상품+(선수금+초과청구공사)*0.7

[PF 우발채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ABCP	ABS	기타 PF Loan	합계
2017.12.31	-	-	4,942	4,942

자료: 동사제시

주1: 상기 자료는 해당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회사에 있으며, 당사는 상기의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한 바 없음.

주2: 보증잔액 기준

유동성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

동사의 유동성지표는 차입금 부담 완화 및 보유 현금성자산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금 조달처가 주로 은행권의 담보차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환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유동성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017년말 기준 동사의 단기성차입금(871억원)은 총차입금 대비 40.1%수준으로 보유 현금및 금융상품(544억원), EBITDA규모(322억원)를 감안했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며, 유동성 커버리지 역시 99.4%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임.
- 또한, 1금융권 위주의 분산된 자금 조달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사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차환가능성이 용이한 점을 감안할 때 유동성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유동성 지표]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현금 및 금융상품	1,763	1,179	714	544
사용제한예금	124	150	28	29
EBITDA	411	220	430	322
단기성차입금	1,310	1,896	920	871
단기성차입금/총차입금(%)	30.1	56.7	34.2	40.1
유동성커버리지(%)	166.0	73.8	124.3	99.4

자료: 감사보고서

주: 현금및금융상품=현금및현금성자산+장단기금융상품

그룹 재무부담 과중, 주력 계열사로서 지원부담 상존

경기변동과 대외변수에 민감한 건설, 항공 등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그룹 전반의 수익변동성이 크고, 그룹 재건 및 대형항공기 도입 과정에서의 차입부담으로 전반적인 재무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다. 최근 항공부문과 동사의 실적개선으로 수익성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경기 또는 대외변수의 변동성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 전반의 수익변동성과 재무부담은 주력 계열사인 동사의 지원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15년 박삼구 회장이 신규 설립한 금호기업(주)를 통해 금호산업 지분(46.5%)를 인수하였으며, 2016년 금호터미널(주)가 금호기업(주)를 합병하고 금호홀딩스(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금호고속(주)를 합병한 후 2018년 4월 금호고속(주)로 상호를 변경, 현재는 금호고속(주)가 사업주회사로서 실질적인 그룹 지배회사임.
- 건설업과 항공 및 육운(고속버스) 등 운송관련 업종으로 그룹 사업구조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유가, 환율 등 대외변수에 민감한 항공부문의 실적에 따라 그룹 수익구조가 연동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음.

- 그룹 지배회사인 금호고속(주)의 경우, 그룹 재건과정에서 인수자금을 대부분 외부차입으로 조달함으로써 차입규모가 과다한 편임. 다만, 2016년 금호터미널(주)를 합병한데 이어 2017년 수익기반이 안정적인 금호고속(주)를 합병함으로써 전반적인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아시아나항공(주)의 경우, 실적호전에도 지속적인 항공기투자로 재무부담이 과중하고 차입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어 유동성대응능력이 제한적임. 최근 대한통운 주식 매각, 금호사옥 매각,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충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유동성대응능력 확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함.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EBITDA	총자산	순차입금	EBITDA/ 매출액	부채 비율(%)	차입금커 버리지(배)	유동성커 버리지(%)	
금호고 속(주)	2015	0	-14	-14	18,526	5,612	N/A	283.0	N/A	56.7
	2016	15,313	256	722	32,137	12,177	4.7	588.6	16.9	36.5
	2017	17,020	277	993	29,983	7,326	5.8	299.6	7.4	34.6
금호산 업(주)	2015	15,310	208	220	13,100	2,166	1.4	351.5	9.9	73.8
	2016	13,537	418	430	12,746	1,975	3.2	309.5	4.6	124.3
	2017	12,979	311	322	12,849	1,628	2.5	227.2	5.1	99.4
아시아 나항공 (주)	2015	55,407	461	4,719	92,927	48,533	8.5	991.2	10.3	48.8
	2016	57,636	2,565	6,578	82,292	43,405	11.4	689.9	6.6	48.4
	2017	62,271	2,759	7,229	85,506	42,232	11.6	588.2	5.8	48.2
(단순) 합산	2015	70,717	669	4,939	106,027	50,699	7.0	828.6	10.3	50.9
	2016	72,949	2,821	7,300	114,429	55,582	10.0	658.5	7.6	46.0
	2017	79,291	3,036	8,222	115,489	49,558	10.4	479.5	6.0	45.6

자료: 각 사 연결감사보고서

주: (단순)합산의 경우, 2015년은 금호산업(주) 및 아시아나항공(주), 2016년 및 2017년은 금호고속(주) 및 아시아나항공(주)의 연결재무지표 합산금액임.

Fundamental Review

단기신용도 A3-	Fundamental bbb-
--------------	---------------------

Mapping Grid

사업위험		aaa	aa	a	bbb	bb	b
매출액(조원)				√			
매출 및 이익 변동성						√	
사업기반	시공능력순위(위)			√			
	다각화				√		
	경쟁역량				√		
재무위험		aaa	aa	a	bbb	bb	b
수익성	영업이익/매출액(%)					√	
	운전자금 관리						
재무정책	유동성 리스크 관리				√		
	투명성 및 안정성						
레버리지	조정부채비율(%)			√			
커버리지	조정차입금커버리지(배)				√		
모형신용도		aaa	aa	a	bbb	bb	b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 관리 수준	양호	보통	미흡
-------------	----	----	----

Mapping Grid: 건설업

사업위험		가중치	aaa	aa	a	bbb	bb	b
매출액(조원)		10%	≥10	≥5	≥1	≥0.5	≥0.05	<0.05
매출 및 이익 변동성		15%	매우 낮음	상당히 낮음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사업기반	시공능력순위(위)	5%	≤3	≤7	≤20	≤70	≤150	>150
	다각화	10%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경쟁역량	10%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재무위험		가중치	aaa	aa	a	bbb	bb	b
수익성	영업이익/매출액(%)	10%	≥15	≥10	≥6	≥3	≥2	<2
	운전자금 관리	20%	매우 보수적	상당히 보수적	보수적	비교적 보수적	공격적	매우 공격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								
투명성 및 안정성								
레버리지	조정부채비율(%)	10%	≤150	≤200	≤300	≤450	≤800	>800
커버리지	조정차입금커버리지(배)	10%	≤2	≤4	≤6	≤10	≤20	>20

본 평가에 적용된 주요 평가방법론은 산업별 평가방법론_건설(2016) 등입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서울신용평가주 홈페이지 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결산자료, 차입금 현황 등입니다.

[단기채무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 의
A1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등급에서 A3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 C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8년 5월 10일이고, 계약체결일은 2018년 5월 9일이며, 평가완료일은 2018년 5월 25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0건, 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요청인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며, 동 기업집단의 직전연도 평가수수료 비중은 당사의 직전연도 평가수수료의 0.0%에 해당합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기업집단의 직전연도 비평가용역 수수료 비중은 당사의 직전연도 전체 비평가용역 수수료 총액의 0.0%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평가의견 및 간행물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에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간행물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3) 신용평가서, 평가의견, 간행물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각종 공시자료 등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본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4)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매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